

고려가요 연구 결과의 공유와 확산에 대하여

최미정*

- I. 들어가면서
- II. 최근 고려가요 연구 결과의 검토와 방향 모색
 - 1. 고려가요의 새로운 어석에 대하여
 - 2. 역사적 접근의 길 찾기
 - 3.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식 제공 문제
- III. 나가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은 2000년 이후의 고려가요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살펴, 그 문제점을 정리하고 고려가요 연구가 앞으로 주력할 부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기한 것이다. 고려가요 연구자가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권리를 지키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가운데,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최근의 관심들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필자의 견해를 어석의 문제, 역사학적 접근의 길 찾기,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식 제공의 세 분야에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어학과 문학 연구가 만나는 고려가요 연구에서 연구의 원칙과 윤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난해구를 비롯한 몇몇 어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거듭되고 있는 현실은 재고가 필요하다. 문학연구자가 어학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어석을 주장할 때는, 선행 문학연구가 활용한 국어학 이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론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 계명대학교 국어문학과 교수

한 명백하게 오류로 판명된 과거의 어석을 근거로 문학논의를 진행할 때는 그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던 선행 어학 이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어학연구자가 문학연구자의 상상력을 작품 전체의 이해 틀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선행 문학연구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연구윤리이다. 인접학문의 활용에는 자신의 영역에서보다 더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당대 자료가 빈약한 고려시대의 문학 연구에서 특히 취약한 역사적 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려사』를 함께 읽고 연구하는 모임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려사』에서 가요와 악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 등을 체계화해 고려가요의 발생과 관계된 정황 등의 연구에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려가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선의 악장에 대한 연구와는 별도로 고려의 악장 연행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불교국가 고려에서 사랑노래가 주를 이룬 악장의 수용 현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연행 공간인 궁중과 사찰에 관한 연구도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려가요 연행 현장에서 창작자와 향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적 교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연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에는 고려가요 연구자의 업적을 참조하였음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핵심어 : 고려가요, 난해구, 연구사, 『고려사』, 고려 악장.

1. 들어가면서

편의상 고려가요로 통칭하는 고려노래의 연구는 약간 주춤하는 듯한 시기도 있었지만, 계속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 왔다. 고려가요는 새로운 작품 발굴이 거의 없는 만큼, 새로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대표적 분야임에도, 연구 결과를 학계에 제출하는 연구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성과는 학회들의 특집 혹은 기획에 힘입은 바 크다. 2017년 <국

문학회>의 <한국의 고전을 다시 읽는다(2)>에서 고려가요에 대한 발표회를 기획한 것도 또 하나의 지침이 되리라고 믿는다.

고려가요 연구의 전통적인 분야인 국어학적인 어석과 국문학적 해석 외에 근래에는 문학교육적 연구, 콘텐츠 연구와 음악적 연구가 활성화되어 더욱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활발해진 연구 중 문학교육과 콘텐츠 연구는 2000년대 이후의 국문학연구의 일반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인 반면, 음악적 연구는 고려가요 분야에 더욱 특화되어 발전하는 중이다. 특히 정확한 재연이 곤란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고려가요를 연행한 최근의 성과는 이론적으로 어렵게 진행되던 이 분야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주는 바 크다. 반면,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고려가요의 역사적 연구는 여전히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문학회의 이번 기획은 <가시리>와 <쌍화점>으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이 두 작품에 논의가 집중되면서도 고려가요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 연구자의 시각과 방법론 역시 지금까지 학계에서 활용된 다양한 시각이 망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오늘의 발표를 여는 발제자로서 필자는 1927년 안학의 『여조시대(麗朝時代)의 가요(歌謠)』 발표 이후로¹⁾ 단행본만 해도 수 십 권이 나와 있는 고려가요 연구 결과의 공유와 확산에 대한 그간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런 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고려가요의 작품수가 다른 분야보다 제한적이어서 연구 성과의 중첩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논의하는 현황은 기본적으로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연구 성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필자의 논점 중 하나이지만, 검토 대상의 시기를 제한한 것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중요한 몇 번의 집중 기획으로 고려가요에 대한 연구사 및 기본 방향이 정리된 바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시가학회>의 창립을 결의한 1996년 <고려가요연구의 현황과 전망>의 학술대회의 결과로 그간의 연구 성과 및 문제점이 정리되었고,²⁾ 2002년 국어국문학회 50년을 맞아 <국어국문학회>

1) 박재민, 『국어교육을 위한 고려가요 어석(語釋)의 연구사와 그 전망』, 『한어문교육』 34,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5, 113면.

가 출간한 『국어국문학회 50년』³⁾, 2003년 이화여대에서 펴낸 『국문학연구 50년』⁴⁾에 실린 「고전시가 연구」 중 고려가요 분야의 정리 또한 유효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문학회>가 2000년부터 『국문학연구』를 통해 매해 정리한 「연구동향」의 고전시가 분야 연구 동향, 2008년부터 <고전문학한문학회 연구학회>가 작성하는 고전시가 연구동향 역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논고들이 시가연구사의 일부로서 고려가요에 대해 언급한 반면, <국문학회>는 2004년 <국문학연구의 쟁점과 과제>를 기획했으며, 이때 임주탁에 의해 「고려가요 연구의 시각과 방법」이 전체적으로, 또 각 작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⁵⁾ 이후의 집중적인 논의로는 박재민의 「국어교육을 위한 고려가요 어석(語釋)의 연구사와 그 전망」(2015)에서 주로 고려가요의 어석과 관련된 연구사적 검토가 진행되었으며,⁶⁾ 임주탁은 최근 「고시가 연구의 현재와 미래」(2016)에서 그간의 학계의 연구를 반성적으로 검토하며, 2004년의 발표에서 제기한 문헌학과 맥락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다.⁷⁾

본고는 이런 세심한 검토들이 있었음에도, 여기서 지적된 중요한 제안들이 후속 논의들에서 다소 공전되는 경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 이에 대한 제안 및 새로운 연구 경향에 대한 견해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어석의 문제

둘째, 역사적 접근의 길 찾기

셋째,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식 제공 문제

2)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고려가요연구의 현황과 전망』, 집문당, 1996.

3) 고순희, 「고전시가연구사」,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회 50년』, 태학사, 2002.

4) 성호경, 「고전시가 연구 50년」,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국문학연구 50년』, 해안, 2003.

5) 임주탁, 「고려가요 연구의 시각과 방법」, 『국문학연구』 12, 국문학회, 2004.

6) 박재민, 같은 글(2015) 참조.

7) 임주탁, 「고시가 연구의 현재와 미래-시각과 방법을 중심으로-」, 『어문학』 134, 한국어문화회, 2016.

II. 최근 고려가요 연구 결과의 검토와 방향 모색

1. 고려가요의 새로운 어석에 대하여

2000년 출간된 『향가와 고려가요』는 김완진 교수가 1990년대에 제기한 고려가요 어석에 대한 여러 발표를 아우르고 있다. 고려가요 어석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양주동 교수의 『여요전주』(1947)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견을 제기한 그의 『문학과 언어』(1979) 이후에도 남아 있는 고려가요에 대한 어학적 문제의식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6년 김완진 교수 정년 퇴임기념으로 발간된 『관악어문연구』 21집에도 여러 논자의 고려가요 어석에 관한 논문들이 실려 있고, 1998년 <한국시가학회>의 <고전문학 연구 방법론과 인접 학문> 특집에 『고려가요 해석의 발전을 위하여』⁸⁾를 발표하고 있어 김완진은 1990년대 후반 고려가요 어석의 활성화에 가장 많은 자극을 준 연구자이다. 2000년대와의 연관을 위해 이 두 특집에 실린 어석에 대한 연구를 잠깐 언급하면, 전자에서는 여러 논자가 ‘고려가요 형태소 -시-’에 관한 논의⁹⁾, 또 난해구인 ‘설진강수를 비조라,’ ‘쑤 저재 너러신고요,’ ‘어저 녹저 흐논 디’¹⁰⁾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기하였고, 후자에서는 김완진이 ‘므릅노이다,’ ‘슬할스라온더,’ ‘이시인생(以是人生)에 상불어(相不語) 흐시란디’를 논의하였다. 그는 외에도 ‘삼재팔란(三災八難), ‘삭삭기 세물애’와 ‘잡싼간,’ ‘벗룻,’ ‘곰비’와 ‘림비’도 고찰하였다.¹¹⁾

본고의 대상인 2000년대 이후의 여러 연구자의 논문에서 제목으로 고려가요 어구 및 작품 구문의 새로운 해석이 제시된 것으로는 <정과정>의 노랫말, ‘소성대(昭聖代), ‘고려시대 거센소리,’ ‘고려시가의 선어말어미,’ ‘-오/우-,’ ‘마아만하니여,’ ‘고려가요 의문문,’ ‘삼동(三同)·삭삭기,’ ‘동동의 선어(仙語) 및 난해구,’ ‘분디 남ᄃ로 갖곤,’ ‘므릅노이다’ 등이다.¹²⁾

8) 김완진, 『고려가요 해석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시가연구』 4, 한국시가학회, 1998.(1998-a)

9) 이정복, 『고려가요 형태소 -시-의 재해석』, 『관악어문연구』 2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10) 황선엽, 『고려가요 난해구 몇 구절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11) 김완진, 『고려가요의 물명(物名)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7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3면.(1998-b)

또 2000년 이후 작품에 대한 어석을 중심으로 한 논문은 <만춘별사>, <정석가>, <청산별곡>¹³⁾ 등으로 드러나지만, 고려가요에 대한 모든 작품론은 텍스트 확정을 위해 시가의 문면을 나름대로 구성하기 위해 모든 시구를 이론화하였을 것이므로 제목에 드러나지 않은 어구 신해석은 더 많을 것이다. 작품론에서 어학적 논의뿐 아니라, 인접학문 즉, 문헌학, 민속학의 도움으로 어석을 새롭게 밝힌 것을 포함하면 <유구곡>의 ‘머곡당이’¹⁴⁾, <청산별곡>의 ‘값대’, ‘장글’, <쌍화점>의 ‘드레우물’¹⁵⁾ 등이 더해진다.

외에도 2003년 최철·박재민, 2010년 이등룡의 새로운 단행본 주석서가 나왔으니 어휘에 대한 논의는 더욱 진행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¹⁶⁾ 후자의 경우, 2002년에 이미 제기한 <동동>의 ‘만춘(滿春)달’, ‘잇꽃’ ‘분디 남ᄃᆞ로’ 등에 대한 견해를 비롯해,¹⁷⁾ 고려시대의 속요, 무가, 경기체가의 어휘에 대한 견해를 광범위하게 제기하였다. 전자의 공동저자인 박재민이 2015년의 논문에 정리한 바에 의하면, 고려가요의 난해구는 여전히 고려가요 13작품에 27군데로 남아있다.¹⁸⁾

이상에서 그간의 고려가요에 대한 어석 연구를 열거한 것은 이들의 연구 결과가 새로워져서만은 아니다. 1998년 이전에도 이 난해구들에 대한 논의가

- 12) 유동석, 「고려가요 <정과정>의 노랫말에 대한 새 해석」, 『한국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2000; 김완진, 「『소성대(昭聖代)』에 대한 한 생각」, 『새국어생활』 11, 국립국어연구원, 2001; 최중호, 「고려시대 거센소리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24, 한국중세사학회, 2008; 임재욱, 「고전 시가 작품에 사용된 선어말어미 ‘-오/우-’의 기능」, 『한국시가연구』 29, 한국시가학회, 2010; 유동석, 「고려가요 <처용가>연구 -‘마아만하니어’의 어석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2, 한민족어문학회, 2012; 최선경, 「고려가요 의문문의 수사적 의미와 기능」, 『수사학』 17, 한국수사학회, 2012; 박재민, 「<정석가> 주석 재고와 문학적 향방(1)-삼동(三同)·삭삭기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고전문학한문학회, 2012; 신재홍, 「동동의 선어(仙語) 및 난해구 재해석」,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 13) 박재민, 「<청산별곡>의 어석에 대한 재고」, 『한국시가연구』 32, 한국시가학회, 2012; 박재민, 「<동동>의 어석과 문학적 향방」, 『반교어문연구』 36, 반교어문학회, 2012; 박인희, 「<만춘별사> 4연 연구」, 『어문논총』 6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 14) 임주탁, 「<유구곡>의 해석과 <별곡조>·<포곡가>와의 관계」, 『한국문학논총』 49, 한국문학회, 2008.
- 15) 이복규, 「고려가요 난해어구 해독을 위한 민속적 관건」, 『국제어문』 30, 국제어문학회, 2004; 이영태, 「고려시대의 단요 풍속으로 읽는 <청산별곡>」, 『역사민속학』 2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외에 박인희(2016)는 조류학적 지식으로 ‘소곳얼면 어홀도 도흐니’를 해석했다.
- 16) 최철·박재민, 『석주고려가요』, 이회문화사, 2003; 이등룡, 『어요석주』, 한국학술정보, 2010.
- 17) 이등룡, 「고려가요 어석연구」, 『인문과학』 32,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 18) 박재민, 같은 글(2015), 140면 도표 참조.

적지 않게 있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같은 어휘에 대한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연구가 다수 나오는 것은 앞선 연구 논문들에 논리적 정치성이 결여되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다양한 새로운 해석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

하나는 새로운 문헌의 등장으로 특정 어휘에 대한 해석이 추가적으로 보완되는 경우이다. 최근의 예는 아니지만, <쌍화점>의 ‘덥거츠니’의 경우가 해당한다.¹⁹⁾ 이런 경우는 의미의 확정에 결정적일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각 연구자가 기대고 있는 이론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연구자가 새롭게 해석한 단어를 중심으로 나머지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작품 전체를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

셋째, 난해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의욕이 새로운 논문을 낳는다. 고려가요의 난해구는 고려가요가 그 용어의 유일한 출처여서 그 노래를 제외하고는 다른 맥락에서의 용례를 비교해 볼 수 없는 경우이다. 난해구의 해석은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난해구를 둘러싼 나머지 부분의 의미망 내에서 난해구의 의미를 추정하게 되지만, 그 의미는 작품 전체를 새로운 의미로 다시 해석하게 되므로 수렴과 확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결과가 된다. 난해구를 풀지 않고는 아무리 정치한 해석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에 연구자들의 해석 의욕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난해구를 비롯한 거듭 논의되는 몇몇 어구의 새로운 해석은 얼마든지 계속되어도 좋은가에 대해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로운 해석이 문법에 관계된 논의일 경우에 대해 좀 더 주목하고자 한다.

문법적인 논리를 추구할 때, 문학연구자는 아무래도 어학연구자의 연구를 참조하게 된다. 이때, 어학연구 역시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다 보니 이를

19) ‘덥거츠니’는 <쌍화점> 외에서는 나오지 않는 형태로 ‘덥거츨’의 속음(俗音)이라 하여 ‘덥거츨’의 의미에 기대 해석되고 있었다. 양주동이 『석봉천자문』을 인용, ‘우울한 것’ 또는 ‘답답한 것’으로 풀이한 범주의 의미로 통용되었다. 이후 안병희가 『법화경언해』를 인용, ‘덥거츨’을 바른 어형이라 규명하였다. 그러나 모두 ‘무예(蕪穢)’ 즉 ‘뒤엉클어지다’ ‘거칠다’의 의미범주로 설명되었다. 이후 『백련초해』의 두 이본의 존재에 근거, 이기문(1972), 서재극(1973)에 의해 부정적이지 않은 의미의 ‘무(茂)’로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최미정, 『쌍화점의 해석』,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257면 참조.

참조하는 문학연구자의 균형 감각이 의미 있는 논지 전개에 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문학연구자는 새로운 문법 견해를 인용하거나 혹은 제기하기에 앞서, 선행 문학논문에 참조한 문법적 연구에 어떠한 논리적 결함이 있어 그와는 다른 문법적 견해를 채택하게 되었는지, 혹은 전혀 새로운 자신의 견해를 제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천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예로, 양주동 교수의 『여요전주』의 문제점들이 다수 지적된 김완진의 『문학과 언어』(1979) 이후 38년이 지났음에도, 『여요전주』의 해석은 여전히 문학논문에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중적인 검증을 받은 『여요전주』의 어석을 여전히 작품 분석에 인용할 때에는 그간 여러 논자들이 제기한 반론들이 왜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가설을 지지한 논의들이 있다고 해서 그 논의들의 근거를 반박하거나 지지함으로써 그 가설이 부정되거나 지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 출발하거나 논의된 가설들을 반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의의를 가질 따름이지, 그로 인해 제시된 가설 자체의 진위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다.²⁰⁾

라는 의견은 타당할 수 있지만, 어학적 연구의 경우에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어학은 문법에 의거한 근거 위에서 성립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미 명확하게 지적된 문법적 오류를 다시 반복하는 논문에서 정당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떤 어학자가 이전의 문법적 오류를 지적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니, 주의를 요한다. 어학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발전적인 비판이 거듭되는 만큼, 그 이론을 활용하는 문학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그간의 이론적 추이에 대한 날카롭고 세심한 추적과 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인접학문의 활용에는 자신의 영역에서보다 더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의 이질적인 연구 경향은 늘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20) 임주탁, 같은 글(2008), 15면.

20년 전, 김완진교수는 국문학연구자들에게 “최소한의 어학적 판단력은 지니고 있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문학연구자는 “언어가 그 발화 상황 즉 문학적 상황을 고려한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점과 “시가의 언어가 일상어가 아닌 이상, 시를 시이게 하는 시성을 살린, 시어의 특성(예로 시적 기능)을 살린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 질문했다.²¹⁾ 서로 다른 입장인 듯하지만, 이 토론보다 또 20년 전에 김완진교수가 했던 비판을 생각하면 양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그는 양주동 교수의 『조선고가연구』를 비판하며 향가 어휘 해석에 “맥락일치의 기준”을 요구했다.²²⁾ 생각해 보면 ‘시적 상황’ 역시 ‘맥락’이다. ‘맥락일치’와 ‘시적 상황 이해’는 전공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시가 연구의 기본 태도이다. 결국 국문학연구자가 어학적 자질을 기본으로 하듯, 어학연구자 역시 문학적 이해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서로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어학연구자와 문학연구자의 협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단계이다.

문학연구자의 반성이 필요하듯, 어학연구자에게도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예로서, 고려가요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을 때 어떻게 현대어로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학과 문학이 특히 만나게 되는 지점이므로 여기서 살펴보고, 강조하고 싶은 점을 밝히고자 한다.²³⁾

교과서에 수록할 현대어역에는 합의된 원칙이 필요할 것인데, 기왕에 제기된 바는, ‘현대어 표기와 의고체’를 원칙으로 하되,²⁴⁾ 원시가 가진 운율을 고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고려가요의 현대국어 번역은 표기만 현대식으로 하고 문법형태와 어휘의 경우는 가능한 한 원시의 것을 그대로 살려 쓰자”는 데 합의를 본 상태라고 한다.

21) 김완진(1998-a)에 대한 양희철의 토론문. 『한국시가연구』 4, 한국시가학회, 1998, 136면 참조.

22) 김완진, 『문학과 언어』, 탑출판사, 1979, 81면.

23) 유동석, 「고려가요 해독을 위한 이론적 전제」, 『어문교육논집』 17, 부산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2000; 양세희, 「고려가요 이해를 위한 옛말 문법교육 방안-〈동동(動動)〉을 대상으로-」, 『한국어문연구』 9,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1.

24) 김완진, 「정읍사의 해석에 대하여」, 『국어학』 31, 국어학회, 1998.(1998-c)

그러나 번역의 목적이 의미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인 한 원시의 것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령 <청산별곡>의 ‘가던 새 본 다’에 나타나는 과거 시제 이인칭 의문형어미 ‘나다’의 경우, 이것을 그대로 살려 쓰게 되면 현대국어 화자는 현재 시제 평서형어미로 오해하게 되어 의미 전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원시의 운율을 다소 파괴하는 일이 있더라도 대응하는 현대국어의 문법형태로 바꾸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²⁵⁾

와 같은 원칙 하에서 위의 <청산별곡> 구문은 “물 아래 가던 새 보았느냐”로, “바쁘란 또 엇디호리라”는 “밤일랑 또 어찌할꼬?”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⁶⁾

어학전공자는 문학전공자보다 문법적 측면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것이 사실이어서, 이런 자세한 이론적 설명은 문학연구자에게 문법에 대한 관심을 더욱 촉구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작품 번역이 완결되지는 않는다. 어휘든 문법이든 작품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해야 하므로 자연 문학적 설명이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문학연구자의 시적 이해 역시 고려될 터이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어학자들은 작품에 대한 문학적 연구 결과 위에서 자신들의 어학적 논지를 전개하는 현대어역 등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참조한 문학 논문을 인용하거나 소개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하다. “고전 작품의 해석에 몸을 던진다는 것은 어학도의 일반적인 계명을 거스르는 측면이 있다.”²⁷⁾는 국어학자의 술회는 어학만으로는 부족한 지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그것이 문학적 상상력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주목하지 않았던 점을 작품해석의 주요 요소로 착안하여 발휘하는 상상력은 작품 전체의 이해 틀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저작권을 갖는다.²⁸⁾ 특정 어휘만을 제한적으로 설명하는 논문이 아니라면, 문학연구

25) 유동석, 『고려가요의 현대어 번역과 관련된 몇 문제』, 『한국민족문화』 23,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10면.

26) 유동석, 같은 글(2004), 5면.

27) 김완진, 같은 글(1998-b), 3면. “자료제함에 묶여 어쩔 수 없이 불분명한 대상 속에 몰입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28) 황병익, 『동동의 ‘송도지사(頌禱之詞) 개효선어(盖效仙語)’의 의미 고찰』, 『고전문학연구』

자의 상상력을 차용할 경우 선행연구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연구윤리이므로 앞으로는 지켜지기를 바란다.

2. 역사적 접근의 길 찾기

고려가요는 고려 시대의 노래라는 뜻이나, 실제 노래의 의미를 고려 당대의 발생 상태와 연관 지어 설명하기 어렵다. 고려가요가 전하는 문헌의 한계 때문이다. 필자는 고려사 전공자로부터 자신의 고려사 저술을 보완하기 위해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참고하고 싶다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고려가요가 역사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자료이기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박사논문은 고려가요는 고려 시대 역사를 되도록 전하지 않는 것들이 취택돼 후대에 전해졌다는 논지를 논술한 것이므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다. 그 논문의 입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고전문학연구가 역사연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계속 풀어야 할 숙제로 필자에게 남아 있다. 고려가요에 대한 논문을 제외하면, 필자의 논문은 대부분 그 작품과 관계된 당대의 역사와 그 작품이 게재된 문헌의 생성, 그뿐 아니라 그 문헌이 현재에 전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관심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때에도 역사연구를 참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반대로 필자의 연구가 역사의 한 지점을 보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문학논의들은 역사 연구 결과를 문학작품이 놓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학계가 국문학계에 제기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헌을 천착해 고려가요에 대한 사회역사적 접근을 시도해 온 소수의 연구자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역사와 밀접한 연관 하에서 고려가요 연구를 지속하는 대표적인 연구자인 임주탁은 고려가요에 관계된 가장 기본적인 책인 『고려사』 전편에 대한 세심한 독해를 통해 고려가요의 작품들을 고려 역사의 시공간에 위치하게 했다.²⁹⁾ 그에게 고려가요에 관계된 자료를 읽고 고려가요에 관한 정보를

37, 고전문학회, 2010 등.

분석하는 작업은 문학연구의 기초³⁰⁾ 그 자체이다. 그는 자신의 방법을 ‘맥락 연구와 문헌학’이라고 규정한다.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미학적 논의는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텍스트의 언어적 질서 곧 의미론적 통일성은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온전하게 파악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³¹⁾ 이 지론은 완성도 높은 결과를 위한 치밀한 연구 자세를 강조하는 일반적인 연구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문헌학적 접근에 있어 세밀함의 정도와 천착의 깊이에서는 이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일군의 연구들에서 배울 바가 많다.³²⁾

이 문헌학적 접근은 문헌 비평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헌 비평은 국어학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 우리를 좀 더 위축되게 한다. “문법을 모르면 문장을 분석할 수 없고 문장을 모르면 (한문, 차자 원전의) 올바른 번역을 할 수 없기 때문”³³⁾이라고 주장하는 이 논문은 시가 연구자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가의 경우, 텍스트 확정에 이르는 여러 단계들마다 저질러진 오독의 문제를 상기하면 그 주장의 단호함은 이해가 간다. 물론 향찰로 기록한 향가의 경우보다는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어휘 해석의 문제는 고려가요 또한 피하기 어려운 문제임은 앞에서 지적한 바이다. 이에서 나아가 여기서 강조된, 문헌 전체 해독에 대

29) <가시리> 1233~1237년(고종 20~24), <정석가> 1237년(고종 24) 전후, <청산별곡> 1249년(고종 36), <한림별곡> 1251년(고종 38) 전후, <만전춘별사> 1270~1271년(원종 11~12)로 고려가요의 생성 시기를 추정하였다. 임주탁, 『강화천도 그 비운의 역사와 노래』, 새문사, 2004 참조.

30) 임주탁, 같은 글(2004), 58면.

31) 임주탁, 같은 글(2016), 358면.

32) 임주탁의 같은 책(2004)에 수록된 일련의 논문 및 박재민, 『<정석가> 발생시기 재고』, 『한국시가연구』 14, 한국시가학회, 2003; 이정선, 『<서경별곡>의 창작 배경을 통해 본 신해석』, 『한국시가연구』 27, 한국시가학회, 2009 등에서 자세한 문헌 연구를 실천하고 있다.

33) 서정목, 『국어학 연구의 현재와 미래』, 『어문학』 134, 한국어문학회, 2016, 332면. 서정목은 문말앞 의미소(형태소) ‘-더-’, ‘-느-’의 통사론적 기능과 지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 혹은 오류에 대한 지적으로부터 시작해 학계의 원전 오독(誤讀)을 짚었다. 그는 그간 향가의 원전인 『삼국유사』와 “그와 더불어 반드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삼국사기』를 함께 연구하며 발견한, 오독으로 인한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는데 그 결과는 향가 작품의 텍스트 확정의 문제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것만으로도 <모죽지랑가>, <찬기과랑가>의 연구에 대한 학계의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 같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그가 1987년부터 2017년까지의 20여 편의 논문, 저서로 역설해 온 바이나, 학계가 얼마나 그 충격을 연구에 반영하였는지는 의문이니, 이후의 경과 또한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 태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성찰하는 것은 고려가요 연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기에, 이 지적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간 상당히 많은 문헌자료가 번역되어 문학연구자가 각종 자료에 접근하기 쉬워졌다. 손쉽게 사용하면서도 그 자료들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드러나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국어학은 국어사와 관련된 문헌의 문헌 비평을 머리카락에 흠과듯이 하였다.”³⁴⁾는 표현은 문헌 비평의 자세를 대변한다. 그러나 이 자료들을 직접 번역하며 공부한다는 것은 한 문 소양이 적은 학문후속세대를 생각하면, 앞으로도 요구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국문학연구와 국어학연구가 한 책을 이룬 『문학과 언어의 만남』(1996)을 보면 확실히 두 연구의 영역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앞서 지적한 두 분야의 연구자가 가져야 할 상대영역에 대한 연구 자세와 함께, ‘머리카락에 흠과기’는 마음에 새겨야 할 태도임에는 틀림없다. 원전 자료를 직접 번역한다든가 자료를 폭넓게 섭렵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루하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연구의 동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삼국유사』를 모여 읽듯, 『고려사』를 함께 읽고 연구하는 모임 등이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대상 문헌의 전체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자세이다. 즉 큰 것과 작은 것을 동시에 보는 시야를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쌍화점>이 실린 자료를 통시적으로 다룰 때 거론되는 『대악후보』의 <쌍화점>을 함께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악후보』의 자료적 성격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대악후보』에 실린 작품 중 많은 것이 줄여져 실려 있고, 『대악후보』는 실제 연주된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기보다는 장악원 악인들에 대한 취재 곡목들이 수록된 것이기 때문에, 줄여진 <쌍화점>은 음악적 원칙이 우선된 것이다. 그러므로 공연 효과에 해당될 사항을 문학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의 의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려가요 작품의 의미를 후대의 악부 수록 작품을 참조해 소급하는 연구도 악부의 전체적 성격을 생각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소악부 혹은 해동악부의 창작 방법 자체가 기존 작품을 그대로 작품화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어떤 악부집은 지나친 변용 때문에 근거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34) 서정목, 같은 글, 333면.

없는 작품이 상당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론된 작품을 비교만 해서는 안 되고 수록된 악부집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역사적 연구의 성과를 돌아볼 때, 다른 연구에 비해 이 분야의 연구가 소략한 것은 연구자의 관심 부족이나 소홀함 때문만은 물론 아니다. 앞에서 거론한바, 고려가요의 정착과 수용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근래 연구에도 여전히 역사적 연구 성과가 드문 것이 사실이지만, 필자와는 다른 이론적 기반을 가진 연구자에게는 관심 있는 방법인 것은 확실하다.³⁵⁾ 이런 특수성 하에서도 임주탁의 『고려사』에 대한 면밀한 독해의 작업이 있어, 어학연구자의 통렬한 비판을 이기고, 문헌 비판은 어학자의 영역만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의 고려가요 작품 연구의 근거는 『주례(周禮)』³⁶⁾라 할 수 있다. 그는 『주례』에 의한 가악(歌樂) 체계, 주나라 중심의 세계 질서 방식 등을 고려가요 분석과 고려가요 기술(記述) 분석에서 의미화하고자 한다. <청산별곡>, <서경별곡> 등에 드러난 8장 구성 혹은 8회 반복되는 후렴은 궁성의 마을 단위(坊)로 조직된 악대인 8방상(坊廂), 나아가서는 8풍(風)의 조화와 통일을 의미한다고 보는 등이다. 8은 정전법에 의한 토지의 구획에서 중심을 제외한 8방의 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³⁷⁾ 그는 이 논리를 작품의 문학적 함의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생성 배경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역사적 요소를 시어에 다수 드러내고 있는 <한림별곡>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문헌학적 분석에 의해 ‘고종 시 한림제유’와 고종 38년 무렵의 역사에 대한

35) 신영명, 『알레고리로 읽는 <쌍화점>-충렬왕 복위 전후 정치사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36, 한국시가학회, 2014.

36) 『주례』, 『예기(禮記)』, 『의례(儀禮)』는 삼례(三禮)라고 하는데 『예기』와 『주례』는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주례』는 중국 주(周) 나라의 제도·예법·정치운영론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그 진위 여부가 문제되기도 했지만 중국에서는 한(漢)대 이후 집권국가의 정치·경제 제도의 원형으로서 기능했다. 중국 중세의 지식인들은 이 책으로부터 국가제도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직접 정치·사상 활동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장동우, 『『주례』의 경학사적 위상과 개혁론-왕권과 예치에 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한국중세의 정치사상과 주례』, 예문출판사, 2005, 6면 참조) 임주탁은 박사논문(임주탁, 『고려시대 국어시가의 창작 및 전승 기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부터 『예기』를 많이 활용하였지만 고려사회는 『주례』의 6전(六典)적 정치조직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과 악제의 상동(相同) 관계를 논하는 그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주례』에 기대고 있다.

37) 임주탁, 같은 책(2004) 참조.

정보와 그 문학화의 의미를 풍부하게 전달하는 사례³⁸⁾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고려에서 『주례』를 수용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고려는 『주례』 중 오례의 예제 부분을 강조했고, 그 중 가례는 전통의례와 절충했으며,³⁹⁾ 육전(六典)적 정치조직을 원용했음이 고찰되었다.⁴⁰⁾ 후자를 보면, 문종 때에는 육부의 관제가 세워졌으나 무인정권은 육부제를 와해하고 정방(政房)을 세워 인사권을 전횡하고 고제(古制)를 폐지하였으므로, 이색, 이제현 등은 『주례』에 의한 정치 제도의 재편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지(金祗)가 『주관육익(周官六翼)』을 짓기도 하였다.⁴¹⁾ 이후 정도전 등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의 정치 혁신에 『주례』가 기본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역사를 참조할 때, 악제⁴²⁾ 및 음악적 상징에 『주례』의 정신이 강고하게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강화 중심의 국가 통치 체제에 대한 다양한 목

38) 임주탁, 「<한림별곡>의 역사적 생성 문맥 연구」, 같은 책(2004), 134면 참조.

39) 이유진, 「『고려사』 『예지(禮志)』에 보이는 『주례』 수용 양상」, 『철학사상』 14, 동국대 철학회, 1993 참조.

40) 그의 일련의 논문에서 숫자는 중요한 역사적 메타포이다. 『주례』에서 6과 8 등의 숫자가 중요한 것과 상통한다. 『주례』는 국가 체제와 관리의 직무를 규정한 것으로 『천관총제(天官冢宰)』, 『지관사도(地官司徒)』 및 춘·하·추·동관의 업무를 규정한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관은 대제(大宰)를 중심으로 이를 보좌하는 소제(小宰) 및 60개의 관서가 배속되어 있으며 나머지에 60개의 관서가 배속되어 있는 등이다. “천관총제는 왕을 도와 ‘육전(六典)을 관장하여 왕의 통치를 보좌하고’, ‘팔법(八法)으로 관부를 다스리고’, ‘팔칙(八則)으로 도(都)와 비(鄙)를 다스리고’, ‘팔병(八柄)으로 왕에게 고하고 군신(群臣)들을 통어하고’, ‘팔통(八統)으로 왕에게 고하고 만민을 통어하고’, ‘구칙(九則)으로 만민을 옹어’하는 등 실제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장동우, 같은 글, 30-32면 참조.) 등에서 숫자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또한 『주례』의 법치는 등급법을 특징으로 한다. 경(卿)과 대부(大夫)의 쟁송에는 방법(邦法)을 근거로 하고, 서민에 대해서는 방성(邦成)을 사용하는 등이다. 이의 기본은 천자를 중심으로 신분질서를 영역질서에서 등급화하는 경기제(京畿制)에 있다. 왕조의 직할지를 왕기(王畿), 방기(邦畿) 또는 국기(國畿)라 하여 이를 중심으로 9기(九畿)를 지정하는 것이다. 고려 성종 14년 왕도와 그 주변을 적현(赤縣)과 기현(畿縣)으로 편제한 근거도 『주례』의 등급법이다.(도현철, 『여말선초의 개혁사상의 전개와 『주례』』,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같은 책, 2005, 88-89면 참조.) 숫자에 대한 그의 주목은 8방상(坊廂) 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등급의 문제는 ‘방상-관현방-교방악’의 층위를 거론하는 바로 나타난다.(임주탁, 같은 글, 1999, 128면)

41) 도현철, 같은 글, 97면.

42) 수도 지역에 12개의 방상(坊廂) 즉 동리악(洞里樂)이 존재하였으며 4개는 상위의 방상, 8개는 1350인의 공인(工人)으로 구성된 기구 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임주탁, 같은 글 (1999) 참조.

소리를 담아낸 텍스트로 고려가요를 규정하는 임주탁의 연구는 각 작품론으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들이 그런 의미를 띠고 고려궁중에서 연희된 것으로 고찰하는 것은 여전히 논쟁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세부적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의 일련의 연구들은 고려가요가 역사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분석 틀이 모든 작품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당대의 문헌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의 설명에 활용되는 『고려사』의 구조적인 구성 요소가 좀 더 총체적으로 논구된다면 국문학과 역사학이 상호보완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학자에게는 사실과 행위가 서술대상이다.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다. 그러나 문학과 역사의 이분법을 넘어 인식의 매개 수단으로서 예술의 가능성을 주목하기 시작한 역사학의 주류변동은 이미 객관과 주관의 이분법 역시 넘어서 역사기술의 방식이 ‘사실의 재현’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근래의 경향이다. 그러므로 『고려사』에서 가요와 ‘악(樂)’에 대해 기술하는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메타역사적 연구⁴³⁾가 함께 진행된다면 고려가요의 사회역사적 연구의 설득력은 증폭될 것으로 본다.

3.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식 제공 문제

고려가요는 악장의 일부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발생으로부터 연행(performance)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고려가요 연행에 관한 논의는 과거의 연행 상황을 재현하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과 다른 시가 장르에 비해 공연성이 강한 고려가요의 현대적 활용의 방안과 의미를 살피는 것, 두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둘 다가 콘텐츠, 문화콘텐츠의 소재가 된다.

콘텐츠는 문자 텍스트를 다양한 디지털 매체로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고, 문화콘텐츠는 당대의 문화적 관점에서 과거 텍스트의 재생산, 혹은 그를 소재로 한 창조적인 내용을 상품화, 대중화시킨 것이다. 전자는 관련 서적이나 공연을 멀티미디어화하는 작업이며, 후자는 현대적 활용과 관련된

43) 헤이든 화이트, 천형균 역, 『메타역사』 1·2,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참조.

다. 과거 악보를 이용해 고려가요를 노래로 되살려 내는 시도는⁴⁴⁾ 이 모든 경향을 종합적으로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노래 레퍼토리를 풍부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음악적 측면을 중시했던 고려가요 연구를 검토하는 작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악보를 텍스트로서 읽어 고려노래의 수련증첩 형식 혹은 유절양식에 대해 추론했던⁴⁵⁾ 필자는 고려가요의 재현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추이를 주목할 생각이다. 또한 문학으로 분석한 고려가요의 정서와 노래 감상을 통한 향수미로서의 정서 비교도 흥미 있는 고찰 대상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궁중에서도 이런 느낌의 노래들이 실연될 때의 미의식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어서 그 재현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또한 전에는 주로 현대시적 계승에 대해 논의되던 고려가요의 현대적 활용은 최근에는 상업화, 대중화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다. <쌍화점>, <정읍사>, <서경별곡>, <만전춘> 등이 시가 학계에서 문화콘텐츠에 대해 논의된 대상이지만,⁴⁶⁾ 논의의 대부분은 영화 <쌍화점> 때문에 <쌍화점>에 집중되어 있다.⁴⁷⁾

영화 <쌍화점>에는 ‘권력’과 ‘성’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두 욕망, 또 이 두 욕망의 부딪침의 문제가 드러나 있다. 이는 고려가요 <쌍화점>과 같지만, 영화에는 여기에 덧붙여진 동성애가 더 두드러진다. <쌍화점>이라는 제목이 동성애라는 자극적 소재를 위해 『고려사』 오잠(吳潛)의 기사에서 가져온 것임은 국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일반 관객들은 영화 안에 삽입된 현대 창작가요의 제목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이 영화의 배경이

44) 문숙희, 『고려말 조선초 시가와 음악형식』, 학고방, 2009; 문숙희, 『시용향악보 복원 악보집』, 학고방, 2013. 이 외에 2011년 이후 문숙희 박사가 주관해 온 <고려 및 조선 노래 복원 연구회> 등에서 복원·편곡된 고려가요가 발표된 것을 유튜브(<http://www.youtube.com>)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45) 최미정, 『고려속요의 유절양식과 분례체의 관련양상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9,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

46) 강명혜, 『고전시가와 스토리텔링』, 『온지논총』 16, 온지학회, 2007; 정인숙, 『<정읍사>의 공연예술적 변용과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7.

47) 최선경·길태숙, 『고전시가의 문화 콘텐츠 소재로의 활용 사례 분석-고려가요 <쌍화점>의 영화화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8, 열상고전연구회, 2015.

공민왕 대인데, 여기에 ‘쌍화점’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은 상상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려사』 공민왕 기사에 이미 동성애가 드러나 있으므로⁴⁸⁾ 그것만으로 스토리는 충족되나, <쌍화점>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은 오잠 기사, 더 정확하게는, 그 안의 <삼장> 기사 때문이다. 여기에 더욱 자극적인 사건, 왕비와의 불륜이 첨가되기 위해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공민왕 대로 설정되었다. 그러면서 충선왕 때 인물 오잠은 사라지고 영화 속 홍림의 모델인 홍륜(洪倫)이 공민왕의 상대역이 되었다. 이처럼 이 영화의 제목은 『고려사』의 오잠에 대한 기록, 즉 왕을 둘러싼 폐행(嬖倖)의 기사에 포함된 <삼장>의 내용⁴⁹⁾, 『악장가사』 <쌍화점>의 시행 및 <삼장>과 <쌍화점>의 관계를 두루 알아야만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정작 상영된 영화 <쌍화점>은 감독의 상상력이 부각되어 있지만, 고려가요 연구자가 이 영화를 많이 거론하는 것은 영화가 <쌍화점>이라는 제목을 갖기까지 감독은 당연히 국문학계 및 국사학계의 연구를 일별하고, 그 중 자신의 스토리를 위한 논의를 선별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국문학계를 비롯한 학계의 전문적인 연구가 다른 분야에 이용되었다면, 그 결과가 가시적이든 아니든, 그에 합당한 저작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국문학 연구결과가 문화콘텐츠로 이용된 경우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문학작품에 활용된 경우는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문학계에서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창작 작품에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최근에는 우리 소설에도 참고논문 목록이 첨부되는 사례가 소수 있기는 하지만, 추리소설 뒤에도 참고논문 목록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외국의 사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문화콘텐츠에는 국문학 연구 저작권의 문제가 더욱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해 둔다.

필자는 고려가요의 문화콘텐츠화에는 양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고려가요가 좋은 자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려가요에는 극적 요소가 풍부하지만, 고려가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랑노래는 구체적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특성은 대중가요를 포함한 현대

48) 『고려사』, 『세가』, 권 43.

49) 『고려사』, 『열전』, 권 38.

적 계층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되지만,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영상문화에 인상적인 스토리텔링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고려가요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보편성은 매력적인 영상물이 되기에는 너무 익숙한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고려가요는 다른 시가에는 없는 매력적인 요소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즉, 고려가요의 연행 상황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공연 환경이 공적인 공간이라는 점은 고려가요가 문화콘텐츠로 전환될 수 있는 장점이다. 정제에 포함되어 존재하는 고려가요는 물론이지만, 그 외 고려가요도 궁중에서 공연되었다는 점에서 배경을 통해서 낯선 문화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시대극이 점점 픽션이 됨으로써 고전서사의 사실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CG와 같은 손쉬운 배경구성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므로 고려가요 가창 공간의 여실성(如實性)은 문화콘텐츠에 활용될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창공간, 특히 고려 궁중에서의 공연상황을 우리 학계가 얼마나 꿰뚫히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문하게 된다. 문헌자료의 면밀한 검토는 이를 위해서도 재삼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작업이 단순한 번역이나 해제와 다른 것은 여기에 연구자의 상상력이 문제의식으로 개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최고 권력자인 군주 앞에서 고려가요를 부르는 것은 어떤 분위기일까? 어떤 효과를 가졌을까? 흔히 말하는 충신연주지사 혹은 음사 등의 의미는 공연 현장에서 얼마나 전달되었을까? 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현실적 결과는 고려가요의 산개(刪改)라는 조선의 방식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었을까? 등에 대한 연구자의 의식이 자료 조사의 대상과 조사 결과의 활용 방향을 정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조선에서의 악장 공연이 아니라, 고려에서의 악장 공연에 대해 생각하면서 「고려속요의 미의식」을 분석한 바 있다. 미적 주체의 인식과 미적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미의식을 고찰하고자 한 것인데, 그 결과로 종교 국가인 ‘고려’의 악장인 고려가요 실황 현장의 집단 향수미는 “고행적 사랑의 구도자적 미의식”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즉 “구도자인 님이 스스로의 종교적 구원을 위해 여인을 비탄에 빠지게 하더라도 여인은 아무 것도 모르고 괴로워한다. 이것을 바라보는 님 즉, 구도자의 심정은 구원을 전

제로 하므로 사실상 평온하다. 님의 의식은 현실적 갈등을 종교적 구원에 의 도달을 향한 종교적 합일의 조건으로 보기에 여인의 갈등을 관조, 조장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⁵⁰⁾ 그 추론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연 분위기를 불교적인 관찰로 접근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고려 궁중과 불교라는 특수성을 밝히고자 할 때, 불교문학의 일반론도 도움이 되지만,⁵¹⁾ 이를 불교적 종교 행사의 실상에 비추어 고찰한다면⁵²⁾ 향수자의 미의식 또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관점이라면, <쌍화점> 2장을 김만중이 그의 『악부』에서 역해(譯解)한 대로 감상할 가능성도 있으며⁵³⁾ 다른 작품들도 불교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 관점의 연구에 전제가 되는 것은 고려에서의 연행 상황에 대한 더욱 확실한 기초 지식이다. 조선조 악장의 연구와 의궤(儀軌)의 연구는 상당한

50) 최미정, 『고려속요의 세계관과 미의식 -고행적 사랑의 미학적 가능성-, 『국문학연구』 5, 국문학회, 2001, 130면.

51) 박경주, 『한문가요연구』, 태학사, 1998; 서철원, 『고려 불교시에서의 소통, 수용 문제와 종교 시사(宗教詩史)의 단서, 『한국시가연구』 31, 한국시가학회, 2011 등을 폭넓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고, 외에도 <만전춘 별사> 2연을 불교 수행의 용맹정진의 발상법과 상상력으로 본 해석 등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강석근, 『한국문학과 선시(禪詩)-선시가 고려가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2,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08, 81면)

52) 고상현, 『고려시대 수록제 연구』, 『선문화연구(禪文化研究)』 10, 한국불교선연구원, 2011.

53) 김만중의 악부 첫째 수는 “그대는 삼장(三藏)의 경문(經文)을 연의(演義)하고/ 첩은 여러 천화(天花)를 뿌렸노라/ 천화를 흠뿌리기 한창인데/ 우물가 오동나무엔 이른 까마귀 울도다/ 바깥사람들 이리쿵저러쿵 말하는 건 걱정하지 말게/ 차 나르던 사미(沙彌)는 한 집안일새라” (『서포집』 권2, <악부>)이다. 정운채는 이 작품의 의미를 “진실을 애곡하고 있는 참언에 대한 경계”에 초점이 있다고 보았다.(정운채, 『<쌍화점>과 <쌍화곡>의 편향과 강호가도의 논의 재고,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고려가요연구의 현황과 전망』, 집문당, 1996, 420면) 필자 역시 서포악부 둘째 수를 생각할 때는 주제가 ‘참언에 대한 경계’라는 데 동의할 수 있으나, 첫째 수의 결구 ‘사미승...’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를 생각한다. 사주(寺主)와 여인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면 사미승이 집안사람이든 아니든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악부 역시 사주와 여인의 사건에 대한 은근한 풍자로 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면 불교를 풍자하는 내용의 <삼장>이 선행하고 이것이 호응을 얻자 여러 권력에 대한 풍자로 부연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한 풍자로 구성된 이후 궁중에 유입된 것으로 본 것이므로 필자의 선행논문(1986)의 <삼장>과 <쌍화점>의 관계는 무리가 없다. 이때 여인이 ‘체념적 미의식’을 가지는 것 또한 앞의 논문과 같다. 이에 비해 ‘삼장→궁중의 삼장→쌍화점’의 과정으로 본 논의는 신명숙, 『고려후기 불교사로 본 ‘삼장사’와 ‘그달사주’의 정체, 『국문학논집』 22,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2013) 참조. 본고에서는 다만 <쌍화점>을 불교적인 행사로 보는 입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피력하는 데 그치고 자세한 논의는 미뤄둔다.

진전을 보았으나 고려조 악장에 관한 고증적 작업들은 이제 시작이다. 앞선 연구들에서는 그 사상적 연원이나 외래적 요소를 밝혀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연희 상황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⁵⁴⁾ 국문학계의 이 분야 연구도 이제는 배경연구로서가 아니라 작품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작품 분석에 반영되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⁵⁵⁾

텍스트와 현장의 결합을 강조하는 시각은 이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 자료, 작가 관련 자료, 발생 공간의 현장과 자료, 유적지의 현장과 자료, 배경설화, 자연경관 등이 각각의 빅데이터로 구축되어야 함”⁵⁶⁾을 시가자료에 부과한 이 주장은 발생현장의 생생함을 문화콘텐츠로 생산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악장인 고려가요의 연행 현장으로서의 궁중은 작가, 발생 공간, 유적지 등, 이 모든 것에 해당하므로 다양한 자료가 집적된다면 우수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이 될 것이다. 외에도 팔관회, 관등회가 열리는 사찰의 현장도 더욱 세밀하게 복원해야 할 것이다.⁵⁷⁾

-
- 54) 임주탁, 『고려 후기 궁중 문화와 고려가요』, 『정신문화연구』 73,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황병익, 『고려속가의 연행 상황과 연행상의 변화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백정희, 『한국의 문화: 조선 나례무(儺禮舞)에 끼친 『주례(周禮)』의 영향 연구-역(易)의 사상적 해의(解義)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4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전인평, 『중앙아시아 음악의 고려 음악에 대한 영향』, 『문명교류연구』 1, 한국문명교류연구소, 2009; 성호경, 『원(元)의 산곡(散曲)이 고려 후기 시가에 끼친 영향』, 『진단학보』 114, 진단학회, 2012; 김명준, 『고려 예종 대 <구실등가(九室登歌)>의 성립 배경과 악장사적 의미』, 『어문논집』 68, 민족어문학회, 2013; 김명준, 『고려 공민왕(恭愍王)대 태묘악장(太廟樂章)의 개찬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시기문학회』 33, 한국고시기문학회, 2014; 이강한, 『충렬왕대의 시대상황과 음악정책』, 『한국사학보』 55, 고려사학회, 2014; 조규익, 『<위의공주혼전대향악장(徽懿公主魂殿大享樂章)>의 시경 텍스트 수용 양상과 의미』, 『우리문학연구』 49, 우리문학회, 2016.
- 55) 『고려사절요』에 실린, 고종 23년 강화 천도 이후 최이(崔怡)가 처음 개최한 연등회에서 <처용회>가 연희된 모습의 제시를 통해 <정석가>를 고찰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임주탁, 같은 책(2004), 104면 참조) 팔관회에 대한 일반적 연구는 한홍섭, 『『고려사』에 나타난 팔관회의 음악양상 및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고찰』, 『한국학연구』 24,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6; 정병삼, 『고려시대 팔관회 행사와 팔관제 신앙』, 『불교학보』 71,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5 참조.
- 56) 손중흠, 『고전시가 텍스트 맥락과 현장의 맥락』, 고가연구회, 『한국시가 연구사의 성과와 전망』, 보고사, 2016, 287면.
- 57)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 출판부, 2005 참조.

III. 나가는 말

고려가요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연구성과는 집적되고 있다. 필자는 고려가요 연구자가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권리를 지키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가운데,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최근의 관심들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이번 기회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했다. 전자에 대해서는 ‘공유’라는 범주에서, 후자에 대해서는 ‘확산’이라는 범주에서, 2000년 이후의 고려속요에 대한 연구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한정된 주제와 필자의 과문 탓으로 많은 중요한 논고가 누락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한 양해를 바라면서 연구자들의 각고의 노력이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명혜, 『고전시가와 스토리텔링』, 『온지논총』 16, 온지학회, 2007, 3~31면.
- 강석근, 『한국문학과 선시-선시가 고려가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 문화』 2,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08, 63~81면.
- 고상현, 『고려시대 수록재 연구』, 『선문화연구』 10, 한국불교선연구원, 2011, 1~49면.
- 고순희, 『고전시가연구사』,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회 50년』, 태학사, 2002, 601~632면.
- 김명준, 『고려 예종 대 <구실등가(九室登歌)>의 성립 배경과 악장사적 의미』, 『어문 논집』 68, 민족어문학회, 2013, 33~62면.
- _____, 『고려 공민왕 대 태묘악장(太廟樂章)의 개찬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시가문 화연구』 33, 한국고시가문학회, 2014, 33~62면.
- 김완진, 『문학과 언어』, 탑출판사, 1979.
- _____, 『고려가요 해석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시가연구』 4, 한국시가학회, 1998, 121~138면.(1998-a)
- _____, 『고려가요의 물명(物名)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7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3~26면.(1998-b)
- _____, 『정읍사의 해석에 대하여』, 『국어학』 31, 국어학회, 3~26면, 1998.(1998-c)
- _____,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출판부, 2000.
- _____, 『소성대(昭聖代)에 대한 한 생각』, 『새국어생활』 11, 국립국어연구원, 2001, 93~100면.
- 김창원, 『고려시대 ‘평양’이라는 공간의 탄생과 고려가요의 서정』, 『국제어문』 47, 국제어문학회, 2009, 175~198면.
- 도현철, 『여말선초의 개혁사상의 전개와 『주례』』,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한국중세의 정치 사상과 주례』, 예문출판사, 2005, 83~117면.
- 문숙희, 『고려말 조선초 시가와 음악형식』, 학고방, 2009.
- _____, 『시용향약보 복원 악보집』, 학고방, 2013.
- 박경주, 『한문가요연구』, 태학사, 1998.
- 박재민, 『<정석가> 발생시기 재고』, 『한국시가연구』 14, 한국시가학회, 2003, 5~28면.
- _____, 『<정석가> 주석 재고와 문학적 향방(1)-삼동(三同)·삭삭기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고전문학한문학회, 2012, 7~31면.
- _____, 『<청산별곡>의 어석에 대한 재고』, 『한국시가연구』 32, 한국시가학회, 2012, 191~221면.

- 박재민, 「<동동>의 어석과 문학적 향방」, 『반교어문연구』 36, 반교어문학회, 2012, 201~225면.
- _____, 「국어교육을 위한 고려가요 어석의 연구사와 그 전망」, 『한어문교육』 34,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5, 113~144면.
- 박인희, 「<만전춘별사> 4연 연구」, 『어문논총』 6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69~89면.
- 백정희, 「한국의 문화: 조선 나례무(儺禮舞)에 끼친 『주례(周禮)』의 영향 연구-역(易)의 사상적 해의(解義)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4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287~331면.
- 서정목, 「국어학 연구의 현재와 미래」, 『어문학』 134, 한국어문학회, 2016, 285~334면.
- 서철원, 「고려 불교사에서의 소통, 수용 문제와 종교사시(宗教詩史)의 단서」, 『한국시가연구』 31, 한국시가학회, 2011, 73~100면.
-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고려가요연구의 현황과 전망』, 집문당, 1996.
- 성호경, 「고전시가연구 50년」,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국문학연구 50년』, 해안, 2003, 207~239면.
- _____, 「원(元)의 산곡(散曲)이 고려 후기 시가에 끼친 영향」, 『진단학보』 114, 진단학회, 2012, 207~239면.
- 손중흠, 「고전시가 텍스트 맥락과 현장의 맥락」, 고가연구회, 『한국시가 연구사의 성과와 전망』, 보고서, 2016, 348~377면.
- 신명숙, 「고려후기 불교사로 본 ‘삼장사’와 ‘그덜사주’의 정체」, 『국문학논집』 22,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2013, 125~148면.
- 신영명, 「알레고리로 읽는 <쌍화집>-충렬왕 복위 전후 정치사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36, 한국시가학회, 2014, 27~49면.
- 신재홍, 「동동의 선어(仙語) 및 난해구 재해석」,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165~202면.
-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 출판부, 2005.
- 양세희, 「고려가요 이해를 위한 옛말 문법교육 방안-<동동>을 대상으로-」, 『한국어문연구』 9,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1, 43~53면.
- 유동석, 「고려가요 <과과정>의 노랫말에 대한 새 해석」, 『한국문학논총』 26, 한국문학학회, 2000, 1~15면.
- _____, 「고려가요 해독을 위한 이론적 전제」, 『어문교육논집』 17, 부산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2000, 1~15면.
- _____, 「고려가요 <처용가>연구-‘마아만하니어’의 어석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2, 한민족어문학회, 2012, 159~175면.
- 이강한, 「충렬왕대의 시대상황과 음악정책」, 『한국사학보』 55, 고려사학회, 2014, 11

7~163면.

- 이등룡, 『고려가요 어석연구』, 『인문과학』 32,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23~39면.
- _____, 『여요석주』, 한국학술정보, 2010.
- 이복규, 『고려가요 난해어구 해독을 위한 민속적 관건』, 『국제어문』 30, 국제어문학회, 2004, 53~71면.
- 이영태, 『고려시대의 단오 풍속으로 읽는 <청산별곡>』, 『역사민속학』 2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345~365면.
- 이유진, 『『고려사』 『예지(禮志)』에 보이는 『주례』 수용 양상』, 『철학사상』 14, 동국대 철학회, 1993, 169~199면.
- 이정선, 『<서경별곡>의 창작 배경을 통해 본 신해석』, 『한국시가연구』 27, 한국시가학회, 2009, 5~51면.
- 임재욱, 『고전시가 작품에 사용된 선어말어미 ‘-오/우-’의 기능』, 『한국시가연구』 29, 한국시가학회, 2010, 331~367면.
- 임주탁, 『고려 후기 궁중 문화와 고려가요』, 『정신문화연구』 73,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49~85면.
- _____, 『고려시대 국어시가의 창작 및 전승 기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_____, 『고려가요 연구의 시각과 방법』, 『국문학연구』 12, 국문학회, 2004, 29~63면.(2004-a)
- _____, 『강화천도 그 비운의 역사와 노래』, 새문사, 2004.(2004-b)
- _____, 『<유구곡>의 해석과 <별곡조> · <포곡가>와의 관계』, 『한국문학논총』 49, 한국문학회, 2008, 5~30면.
- _____, 『고시가 연구의 현재와 미래-시각과 방법을 중심으로-』, 『어문학』 134, 한국어문학회, 2016, 345~377면.
- 장동우, 『『주례』의 경학사적 위상과 개혁론-왕권과 예치에 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한국중세의 정치 사상과 주례』, 예문출판사, 2005, 21~44면.
- 전인평, 『중앙아시아 음악의 고려 음악에 대한 영향』, 『문명교류연구』 1, 한국문명교류연구소, 2009, 89~112면.
- 정병삼, 『고려시대 팔관회 행사와 팔관제 신앙』, 『불교학보』 71,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5, 195~219면.
- 정운채, 『<쌍화점>과 <쌍화곡>의 편향과 강호가도의 논의 재고』,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고려가요연구의 현황과 전망』, 집문당, 1996, 417~444면.

- 정인숙, 「〈정읍사〉의 공연예술적 변용과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7, 127~149면.
- 조규익, 「〈회의공주혼전대향악장(徽懿公主魂殿大享樂章)〉의 시경 텍스트 수용 양상과 의미」, 『우리문학연구』 49, 우리문학회, 2016 87~127면.
- 최미정, 「쌍화점의 해석」,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248~270면.
- _____, 『고려속요의 전승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 _____, 「고려속요의 세계관과 미의식-고행적 사랑의 미학적 가능성-」, 『국문학연구』 5, 국문학회, 2001, 101~137면.
- _____, 「고려속요의 유절양식과 분런체의 관련 양상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9,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 354~381면.
- 최선경, 「고려가요 의문문의 수사적 의미와 기능」, 『수사학』 17, 한국수사학회, 2012, 119~148면.
- 최선경 · 길태숙, 「고전시가의 문화 콘텐츠 소재로의 활용 사례 분석-고려가요 <쌍화점>의 영화화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8, 열상고전연구회, 2015, 261~292면.
- 최중호, 「고려시대 거센소리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24, 한국중세사학회, 2008, 209~231면.
- 최철 · 박재민, 『석주고려가요』, 이회문화사, 2003.
- 한홍섭, 「『고려사』에 나타난 팔관회의 음악 양상 및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고찰」, 『한국학연구』 24,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6, 325~356면.
- 헤이든 화이트, 천형균 역, 『메타역사』 1·2, 지식음판드느 지식, 2011.
- 황병익, 「고려속가의 연행 상황과 연행상의 변화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동동의 ‘송도지사(頌禱之詞) 개효선어(蓋效仙語)’의 의미 고찰」, 『고전문학연구』 37, 고전문학회, 2010, 33~69면.

Sharing and Disseminating of *Koryŏgayo* Research Results

Choi, Mi-Jeong

In this paper, I review the literature on *koryŏgayo*(高麗歌謠) since 2000, summarize the problems highlighted in the literature, and provid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hree-fold: to discuss mutual consent in the lexical reinterpretation of *koryŏgayo*, directions for the historical approach, and the knowledge of *koryŏgayo* for the production of cultural content.

First, there is a need to reaffirm the principles and ethics of *koryŏgayo* studies, which combine linguistics and literary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reinterpretations of some words or difficult phrases have been suggested previously. When literary researchers claim a new reinterpretation of such words or phrases using the results of linguistic research,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need and valid reason for rethinking. In particular, if the literary research is based on past linguistic interpretations that have been proven erroneous, the preceding linguistic theory should be questioned. However, if linguistic researchers use the ideas of other literary researchers as the complet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work of *koryŏgayo*, it is their ethical obligation to cite the previous literary studies as their source. The use of knowledge from adjoining disciplines requires a more cautious approach than in their own sphere.

Second, there is a practical need for study groups to read and study together to facilitate historical research on *koryŏgayo*, despite the shortage of data on Koryŏ. This joint research is expected to simplify the description of the *Koryŏca music*, which could be used to reveal the context related to the generation of *koryŏgayo*.

Third, to provide useful knowledge for the production of cultural content using *koryŏgayo*, studies on the performance of *koryŏ akjang*(Koryŏ court music), separate from that of *chosŏn akjang*, should be increased. Considering that royal palaces and temples provide an interesting setting for cultural content, they should be examined using various approaches. In addition, to investigate the kind of atmosphere in which

a series of love songs were performed as the main repertoires of court music in the presence of a king in the Buddhist country of Koryŏ, the aesthetic sympathy between the creator and the audiences should be analyze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eferences to *koryŏgayo* research to enable the production of cultural content.

keywords: *koryŏgayo*(高麗歌謠), reinterpretation of words and phrases, the literature on *koryŏgayo*, *Koryŏsa*(『高麗史』), *akjang*(樂章).

접수일자: 2017. 3. 31.

심사기간: 2017. 3. 31.~2017. 5. 10.

게재결정: 2017. 5. 10.